

제 231 호

부활 제 3 주일

1977. 4. 24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전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강론□



베드로의

스승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함봉섭 신부

오늘 복음(요한 21, 15-19)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당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하고 물으십니다. 세 번씩이나 스승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마침내 마음이 서글퍼져서 “주님,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리가 없읍니다”라고 스승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믿을 때, 그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이일 때 상대가 원하는 바를 알고, 그를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의 행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을 맡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표자였던 베드로는 대단히 강직한 성격이면서도 번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항상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르코 8, 29)”라고 고백했고,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마르코 14, 29)”라고 장담한 그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세 차례나 스승을 배반했습니다.(요한 18, 17, 25, 27) 이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전에 당신을 세 차례나 배반한 베드로를 세 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돌보는 목회직을 수여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시오(요한 21, 15, 16, 17)” 물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가 주님이신 스승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지만, 예수님은 스승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더욱 그의 믿음을 굳게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바가 무엇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사명과 의무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위해, 스승이 원하는 바, 양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목회적이라는 사명과 의무가 베드로에게 부여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목숨까지 바쳐 사랑으로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목회자로서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 아니라(요한 21, 15-17), 그가 순교함으로써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갔습니다. (요한 21, 18-19)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길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생활속에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 내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주해성 중·고 종교교감)



4·19-학생-지식인

〈고려대 4·18 17돌 기념식〉

4.18 고려대학생 의거 17주년 기념식이 구내에 있는 4.18 기념탑 앞에서 교직원, 재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식을 갖고 교출하게 열렸다.

이날 기념탑에서는 2백여 교직원 재학생들이 17년전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으며, 수유동 4.19 묘지까지의 왕복 마라톤에서 8백여명이 출전했다(東亞日報 77.4.18 7면 1단기사)

〈교정 기념탑서 서울대 기념식〉

서울대에서는 관악 캠퍼스 안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교직원 1백여명과 학생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東亞日報 77.4.19 1면 톱 6단 기사 가운데 1단 기사)

대한민국은 4.19 의거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그런데 4.19 학생의거 17주년 기념식에 대한 대한민국 유수의 신문보도를 간추려 보니 어떤 신문은 아예 2단 기사로 간단히 취급하고 받았다. 정부를 대표한 남덕우 부총리의 기념사에도 「현실을 비판하여 이상을 추구하는 학생 여러분의 학구정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요소」라 했는데, 4.19의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의 후배들은 그 기념식에 모두 어디에 가고 교직원들만 참여하였던가?

전주교구는 4월19일 밤 교구 사제단 50여명이 공동집전한 「4.19기념 정의평화 미사」를 봉헌했다. 며칠전 「소위 정교분리 원칙의 진상」을 밝힌 김재덕 주교는 강론에서 “이나라의 민주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증거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바로 잡혀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투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미사 끝에는 「77 한국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선언」(본지 2면 참조) 등이 낭독되었다.

신자들의 기도에서는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현대의 지식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다.

숲정이 산책



아직도 안남분이 계신다면 빨리...

77 한국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선언

우리는 어둠을 새벽으로 바꾸어야 할(아모스 4,13) 그리스찬 사명을 안고 우리 교회의 진리와 생명,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모든이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결혼의 노동복(I 베드로 5, 5)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들이 찾는 하느님은 우상이 우물거리는 권부나 달린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이다. 사회의 정의와 공명이 거부 당할 때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이 유린될 때, 의지할 곳 없는 작은 형제들의 머리가 땅에 짓밟힐 때, 그리고 정의와 양심을 외치는 사람들이 양심의 포로가 될 때 - 소리높여 외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민중과 일치할 것이며 더우기 그 민중이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그 민중으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벗고(갈라 5, 1) 현재의 불의와 억압을 타파하여 민중이 스스로의 운명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민중의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고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필연코 지게될 그 십자가 앞에 주저 없이 마주 설 것이다.

1.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서단 정당화 된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여야만 한다. 정치 공동체의 존재와 법과 제도가 특권층만을 위한 특수선을 지향하여 사회의 긴장조성과 불의와 부패에 봉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법과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며, 현실의 법과 제도가 자연법과 복음의 가르침에 어긋날 때 우리는 자연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사목헌장 74)

2. 억압은 불의와 부패를 수반한다. 억압은 억압을 영구화 하기 위하여 허위와 폭력을 휘두른다. 인권 유린과 억압의 해독은 급속한 파괴적 영향력을 보급시켜 선린관계의 기초인 자유와 평화를 위협한다. 억압과 부패는 스스로만 부패할 뿐만 아니라 남도 부패시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억압을 절멸시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다같이 인간성의 회복을 통하여 참된 인간으로 부활하는 구원을 희망한다.

3. 모든 사람은 양심의 옳은 기준을 따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양심은 인간은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규범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최악 가운데에 가장 큰 범죄이다. 양심의 포로는 석방되어야 하며, 양심을 수호했다는 이유로 일터와 배움터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복직 또는 복학되어야 한다. 또한 양심을 지키다가 쫓기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은 중지되어야 한다(사목 15, 지상의 평화 9, 11)

4.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고도 풍부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임금님과 근로조건은 이러한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항의와 주장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확인하는 담보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삶을 보장받고 있다. (사목 19, 어머니와 교사 71)

5.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정의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를 위하여 정의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일뿐이다. 평화와 정의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이어야 하며, 자유와 인권은 그것이 지켜지는 곳에서만이 지켜 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목 74, 아모스 5, 24)

6.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4, 20)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권리가 있다. 민중에게서 말을 빼앗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행위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정과 부패와 허위와 권력의 횡포요, 반면 후퇴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삶이다. 잃었던 말을 되찾는 일은 인간 회복의 제 1차적 요건이다.

7. 종교의 사명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며, 권세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며 주리는 자를 배불리는"(루가 1, 51~53)힘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실천에 대하여 부당한 권력의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다. 불의에 의해 희생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정의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1977. 4. 18.

(※ 이 선언은 지난 4월 18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있었던 기도회에서 발표되었다)

사제 세 분 연행되다 !!!

오 태 순 신부 (서울 대교구) 4월 19일
최 기 식 신부 (원주 교구), 안 승 길 신부 (원주 교구)..... 4월 20일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당)

전화 ② 1665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요 고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사순절 돼지 저금통 중간 보고

사순절 동안 교형 자매들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본 교구 사제양성 후원 사업을 위한 성금이 4월 20일 정오 현재 2백 3십 4만 8백 2십 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직도 각 본당에 돼지 저금통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았지만, 우선 그 중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미 교구에 불입한 본당까지도 아직 제대로 저금통이 수납되지 않아 우선은 4월 20일 현재의 중간 결과임을 밝혀드립니다.

취약지구로 알려져 교구 보조를 받던 교향 본당이 신자 1인 평균액이 113원이고, 신설 본당인 용안 본당이 1인 평균 103원입니다. 복자성당은 지난해에 있었던 사제양성 후원 기금 조성에도 1백 2십만원울 모금했는데, 이번에도 1인 평균액 141원이라는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 평균 100원이 넘는 본당은 여산(121원), 삼례(101원), 주현동(100원)입니다.

개인별 최고액은 사제양성 지도신부인 안록진 신부님이 15,040원이며, 두번째는 박중근 신부님으로 14,235원입니다.

본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신부님들은 직접 교구 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영일 신부님, 정승현 신부님, 안복진 신부님만 내주셨습니다.

본 당 명	사순절 성금	신 자 수	1 인 평균액	개 인 별 최 고 액
고 창 신 태 인	100,000원 77,004"	886명 2,240"	113원 34"	6,550원(이면우)
용 안 합 열	115,000" 78,972"	1,119" 2,317"	103" 34"	5,245원(김중현)
삼 례 여 산 주 현 동 창 인 동	178,184" 193,875" 142,050" 257,866"	1,769" 1,606" 1,415" 2,642"	101" 121" 100" 98"	10,655원(최명윤) 11,065원(곽우시아)
덕 진 북 자 서 학 동 숲 정 이 천 동 중 앙	125,650" 184,352" 117,447" 42,077" 210,600" 136,865"	2,172" 1,306" 1,794" 661" 3,846" 3,450"	58" 141" 65" 64" 55" 40"	14,235원(박중근신부) 9,040원(이복주) 5,150원(정만성) 5,790원(정주복) 11,220원(이관형)
금 산 무 주 장 계 남 원 상 관 기 타	48,800" 70,000" 71,010" 105,000" 60,560" 25,510"	1,311" 869" 2,450" 1,221" 1,065" 3"	37" 81" 29" 86" 57" 8,490"	4,485원(이재후신부)
계	2,340,822"	34,142"	69"	15,040원(안복진신부)

요심이 (195)

고백성사 연습을한다. 활동적인 내용으로 고백하도록

아침기도 2번 알았습니다 40점!

심신단체회합과 활동에 세번 빠졌습니다 좋아 100점

교회를위한 일감을 찾아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120점

□이 전 안내□

성 원 약 국

성 원 표(스메파노)

□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③ 5780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 사슴표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전주시 풍남동 1가 17번지
전화 2-5986 2-3765
임 정 원 <도민고>

□개업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 철 수(금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새로나왔다! 삼화수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카스에 강함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정 승인 242호

본사 직영 전북 총 판매점

부 활 상 회

대표 주 원 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가 가정에도 저렴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②2143)



(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용안 성당 축성식 (4월 28일<목> 오후 2시, 주례...김재덕 주교) 다같이 축하합니다.
 2. 교구 인성회 창립 총회 (오늘 오후 2시, 교구청 회의실)
각 분당 사도회장과 봉사위원장은 물론, 별도로 개인 통지 받은 분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3. 성소 주일 행사 (5월 1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강당, 교구 사제 양성위원회 주최)
① 참가대상: 교구내 중, 고, 대학생 및 일반 청년 남녀 (특히 전주 시내 분당의 많은 참석 바람)
② 행사내용: 가. 성소를 위한 미사 나. 강연...인체의 신비 (대학병원내과과장 안 득수 박사)
젊은이의 성소(안복진신부) 다. 화담회 라. 성체 수녀원 방문
 4. 파티마의 모후 표미시움 아치에스 및 파티마의 성모상 전주 순례 (5월 1일 오후 2시, 전동성당)
파티마 국제 본부에서 보내온 성모상이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주에 옵니다.
 5.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돼지 저금통) 내주신 분의 명단을 다음 주부터 줄정이 간지(間紙)에 실립니다.
 6. 성모 병원 의료진 보강, 산부인과 전문의 최 영중 선생과 소아과 유 준홍 선생
※ 다년간 예수병원에서 근무해온 산부인과 최 영중 전문의가 부작용이 전혀 없는 빌링스법에 의한 가족 계획 특별 상담
- 정의. 평화 구현을 위한 미사헌금(40,100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래움대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중앙)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유아세례: 29일 <금> 10시 어머니 미사후
2. 어머니 합창단 총회: 28일 <목> 10시, 강당
3. 불우이웃돕기 험웃 모으기 운동: 5월 22일까지 분당 사무실에서 접수함
 지난주 봉헌금: 111,876원

3. 사도회 월례회: 5월 2일 저녁 8시
4. 안철문 신학생님 군에 입대하십니다 (22일)
5. 교무금 납입하여 교회 운영 도움시다
6. 병자 봉성제: 27일, 사무실에 연락바람
 지난주 봉헌금: 50,620원

(노충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권아영 보좌 신부 박종환 사도 회장 박종환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사회 일정 안내: 남노충동-종도반 (26일 <화> 김 엘리사벳), 평화반 (27일 <수> 노마리아), 형제반 (28일 <목> 이요안나), 중노 1가-봉숭아반, 진달래반 (29일 <금> 오모니카)
3. 견진성사: 5월 15일 (해당자는 8일 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9일부터 14일까지 교리 있습니다)
4. 판공성사 못보신분 하루속히 보세요
5. 신용조합 임시 총회 (감사선임) 및 야외교육: 5월 8일
6. 본당 청년회 경남 산청 성심원 방문: 30일 12시까지 본당에 집합하세요 (1박2일, 참가비 3,000원) ※참가 신청은 24일 <일> 저녁미사 후, 교리실에
 지난주 봉헌금: 49,085원

(서학동)

전화 ②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2. 학생 소풍: 다음주
3. 신용조합 월례회: 10시 미사후
4. 공동체 묵상회: 5월 6~8일 (6일 오후 2시 접수), 본당에서 본당 교우분들 모두와 함께 묵상회를 가지겠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32,750원

(숲정미)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예비자 등록: 수녀님께 첫 영성제반, 청년반, 장년반, 노인반 별로 접수하세요
2. 확인지도: 29일 ※삼임위원, 구역장, 반장 및 차관, 회장님 꼭 참석하세요
3. 돼지 저금통 빨리 내주세요
 지난주 봉헌금: 74,74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김용환

1. 춘계 보미사 강화 교육: 24일 <국교5·6년>
2. 예비자 교리: 어머니반-매주 <금> 오후 4시 학생, 직장인-<토> 오후 7시반
3. 부녀회 월례회: 24일 공식미사 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신축헌금: 이성기(2천), 신동숙(1만) 누계: 5,815,500원
 지난주 봉헌금: 42,895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반
2. 파티마의 성모상 순례: <토> 저녁 8시
3. L.M 아치에스: 다음주 일 오후 2시
4. 예비신자 등록: 5월 1일 <일> 까지 하세요
5. 영세 기념사진 사무실에 있습니다
6. 마지막 주일은 교무금 봉헌주일입니다
 지난주 봉헌금: 115,76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견진성사: 5월 1일 공식미사 중 (대부·모와 같이 9시반까지 나오세요)
2. L·M 간모부임: 27일 <수> 저녁미사 후